

## 광주지역의 시민운동역량 측정\*

박상필\*\* · 이민창\*\*\*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민사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학문적 욕구가 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세계적인 시민사회 비교연구 모델인 시민사회지표(CSI: Civil Society Index)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시민운동지표(civic activism index)로써, 광주지역의 하위 지역 및 활동영역의 시민운동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광주지역 전체 시민운동의 역량은 7점 척도에서 평균 4.5점이었고, 환경·자원·조직화·영향력 등 4개 차원 중에서 일반적인 인식과 비슷하게 환경 차원의 역량이 낮고 영향력 차원의 역량이 높았다. 지역별(구)로는 대도시의 특성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역량이 높고 북구의 역량이 낮게 나왔다. 시민운동의 영역별 비교에서는 중분류의 경우 여성·자원봉사·외국인 영역의 역량이 높았고, 노동/농어민·대안사회의 역량이 낮았다. 대분류의 경우에는 서비스생산 영역의 역량이 주창활동 영역의 역량보다 오히려 높았고, 대안사회운동 영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처음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가 예정대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영역별 역량의 수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광주, 시민사회, 시민운동, 역량, 측정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17).

\*\* 한일장신대 NGO정책대학원 연구교수

\*\*\*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부교수

## 1.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증대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 시민사회의 건강성 혹은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생겨났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민사회의 역량측정을 위한 지표가 개발되었고,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세계 시민사회의 역량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하이어(Helmut Anheier)와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시비쿠스(CIVICUS)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민사회지표(CSI: civil society index)와 이에 근거하여 안하이어와 샬러먼(Lester Salamon)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세계 시민사회의 비교연구이다.<sup>1)</sup> CSI에 의한 세계 시민사회의 역량비교 연구는 2000년 시험적 측정을 거쳐 모형과 방법에 있어서 몇 차례 개선되었고, 지금도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CIVICUS 2010, 2011; Heinrich and Malena 2007).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연구에 참여해왔다.<sup>2)</sup>

CSI는 개별국가 시민사회 역량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개발된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측정모형으로서 CSI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비판이 제기되었다(조효제 2005, 13-16). 예를 들어, 지표구성, 표본추출, 통계자료의 확보, 시민사회단체의 범주구분, 설문항의 구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박상필 2012a). 그러나 CSI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시

- 
- 1) 시비쿠스는 전세계 시민활동과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텐돈(Rajesh Tandon)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참여민주주의, 결사의 자유, 공익자금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계에 시민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단체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다. 영어로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을 의미한다.
  - 2) 국제비교연구 파트너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가 담당하였다. 2003년에 시작된 제1차 연구결과는 주성수 편저(2006), 2008년에 시작된 제2차 연구결과의 일부는 주성수(2011), 김성현(2011) 참조.

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국가적 규모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데 있다. 주지하듯이 시민사회는 그 자체로서 다양한 가치와 제도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개념틀로써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각 국가마다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중점을 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개념틀을 형성하기도 어렵다.<sup>3)</sup>

CSI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개별국가 혹은 이보다 더 넓게 중범위(middle range) 수준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즉, 시민사회보다 좁은 의미인 시민운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역량을 측정하고, 세계적 규모보다는 개별국가 혹은 아시아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 시민운동 측정에 필요한 시민운동지표(CAI: civic activism index)가 개발되었다(박상필 2013). 시민운동은 제도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제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민운동이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추동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복지사회의 구축에도 기여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핵심용어인 자치권력(empowerment),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구상(social design), 공생산(coproduction) 등은 시민운동을 비켜갈 수 없다(박상필 2011, 175-177; Salamon 1995, 1).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물론 시민운동의 역량측정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 이것은 시민운동(혹은 사회운동)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박상필 2011, 103-105; Cohen and Arato 1992, ix-x).

<sup>3)</sup>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민사회는 제3섹터(the third sector)나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로 바라보고,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건강, 교육, 복지서비스 생산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민사회라고 하면 곧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과 등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한국 시민운동의 지역별 및 활동영역별 역량비교 연구의 일환으로서,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하고 하위 지역 및 활동영역의 시민운동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CAI 모형에 나타나 있는 대로 환경·자원·조직화·영향력 등 4개의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활동영역별로 비교한다. 지역별 비교는 광주시의 기초자치단체인 5개 구의 역량을 상호 비교한다. 그리고 활동영역별 비교는 주창활동(advocacy), 서비스생산(service production), 대안사회운동(alternative society activism) 등 3개 영역으로 대분류하여 비교하고, 나아가 환경·인권·평화/통일·여성 등 20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비교할 것이다.<sup>4)</sup>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 장기프로젝트(SSK)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행정구역별 및 활동영역별 시민운동의 역량을 비교하고,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운동의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 2. 개념들의 형성

### 1)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시민운동의 주체는 NGO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기 이전에 NGO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NGO는 국제적으로도 어원적 정의(비정부적 조직)와는 달리, 매우 좁은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NGO를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빈곤층의 이해

<sup>4)</sup> 시민운동의 활동영역을 크게 주창활동, 서비스생산, 대안사회운동으로 나누는 것은 NGO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분법이다. 여기서 대안사회운동은 대안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대안사회의 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대안사회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대안사회인가가 논쟁이 될 수 있다. 대체로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의미한다. 또한 20개 영역 중분류는 1997년 이후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매 3년마다 발행해오고 있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서 주로 사용해온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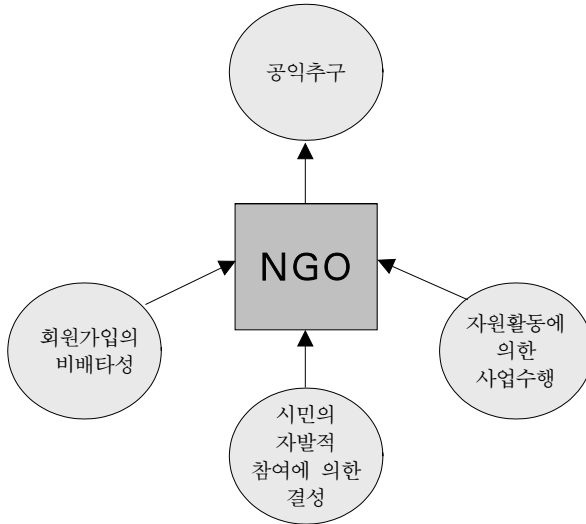
를 증진하거나, 환경보전, 기초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발 등과 같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규정한다. 특히 전형적인 NGO를 기부금과 자원활동에 의존하는 단체로 규정한다(World Bank 2003). 한국에서는 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나타난 시민단체를 NGO라고 부른다.

한국 NGO는 학자마다 개념정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결성, 회원가입의 비배타성, 자원활동에 의한 사업수행, 공익추구 등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민사회의 결사체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NGO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활동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박상필 2011, 137-138).<sup>5)</sup> 아래 <그림 1>은 한국 NGO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

5) 물론 NGO를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 회원단체라기보다 연구소처럼 기관형조직도 있고, 싱크탱크(think tank)나 자조그룹(self-help)처럼 어느 정도 회원가입에 배타성을 지닌 단체도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상근자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NGO 정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익을 일정한 사회단위 내에서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와 사회적 약자의 합당한(reasonable) 이익으로 규정한다(박상필 2011, 142-143). 2005년 영국의 자선법(Charity Law)은 공익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12개 항목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빈곤의 방지와 구제, 교육의 진흥, 사회와 커뮤니티개발의 진흥, 인권옹호·분쟁해결·분쟁조정·인권조화·권리다양성조화, 환경보호 및 개선의 촉진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대부분 NGO의 주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임승빈 2009, 37-38).

〈그림 1〉 한국 NGO의 개념도



출처: 박상필(2011, 138)

## 2) 시민운동

사회학에서는 주로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사회운동이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주로 국가권력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려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NGO학에서는 시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NGO가 주체가 되어 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공공선(public good)을 증대하는 의식적인 집단활동을 말한다(박상필 2011, 287-288). 운동은 ‘미시동원맥락(micromobilization context)’(McAdam 1988)이라는 하부구조가 갖추어져 운동의 이념과 목표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공명을 일으켜 잠재적인 참여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야 발생한다. 과거에 사회운동

에서는 공장, 기숙사, 동아리, 동창회, 교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시민운동에서는 NGO 혹은 NGO간의 네트워크가 의미를 형성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sup>6)</sup>

시민운동은 공공선을 증대하는 생활세계(life world)의 미시적인 활동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대체로 불연속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시민운동은 NGO가 실행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생활정치(life politics)의 각종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과 맥을 같이 하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기존의 민중운동의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개량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래 <표 1>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를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비교**

주요 요소	민중운동	시민운동
운동주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적 주체성을 가진 자	지식인, 학생, 자영업자 등 초계급적 주체성을 가진 자
운동목표	구조개혁과 사회체제의 변혁	사회개혁, 점진적 제도개선, 시민권리 옹호, 공공서비스 생산
운동방식	주로 파업, 시위, 농성 등 반합법/비합법적 방식 사용	주로 캠페인, 공청회, 서명운동, 서비스생산 등 합법적인 방식 사용
운동쟁점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선 추구

출처: 정태석·김호기·유팔무(1995, 284-291) 재구성

<sup>6)</sup> 물론 1990년대 이후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직화된 NGO를 경유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매체를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 혹은 ‘유연자발집단’(조대엽 2003)을 구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역량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사실 역량이라는 개념은 분과학문에 따라 그 속성이나 범주가 다양하고 다층적이다. 기업을 다루는 경영학이나 정부를 다루는 정책학에서는 좁은 의미로서 성과의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NGO를 대상으로 하는 NGO학이나 시민운동론에서는 역량을 넓은 의미로 본다. 거의 시민운동의 건강성 또는 활성화와 비슷한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히 운동의 성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동원되는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운동을 실행하기 위한 사람·자금·정보·네트워크 등의 조직화까지 포함한다. 또한 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주어진 환경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를 통해 지향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시민운동의 역량은 조직 그 자체보다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행동과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중시한다.<sup>7)</sup>

### 3. 연구방법

#### 1) 측정모형의 선정

시민운동지표(CAD)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자원·조직화·영향력 등 4개의 차원에 2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30개 설문항이 제시되었다. 4개의 차원은 일정한 환경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를 통해 지향하는 성과를 달성해가는 시민

<sup>7)</sup> CSI에서도 시민사회를 평가하는 목적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에 두고 있다(Heinrich 2007, xxii). 따라서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강점과 한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CIVICUS 2011, 7). 단순히 활동이 벌어지는 조직보다는 공통이익(common interest)을 증진하는 기능을 중시하고, 경제적 이익보다는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와 개발의 맥락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public action)에 초점을 둔다(Heinrich and Malena 2007, 4).

운동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속성을 갖는 시민운동의 실천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시민운동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목표 달성 후 쇠퇴하고 종결하게 된다. 24개 지표개발은 지표개발 및 NGO학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복적으로 토론을 벌이고 공통분모를 산출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물론 각 차원과 지표는 포괄성(exhaustiveness), 배타성(exclusiveness), 동일수준(same level) 등 지표구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sup>8)</sup> 척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차원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시민운동 다이아몬드(Civic Activism Diamond)로 표현하였다.

---

<sup>8)</sup>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모델은 개별단체에서 특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역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측정모델의 객관성과 일반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측정모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다. 본 논문은 측정모델의 정당성에 대해 길게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측정모델에 대해서는 박상필(2013) 참조.

〈표 2〉 시민운동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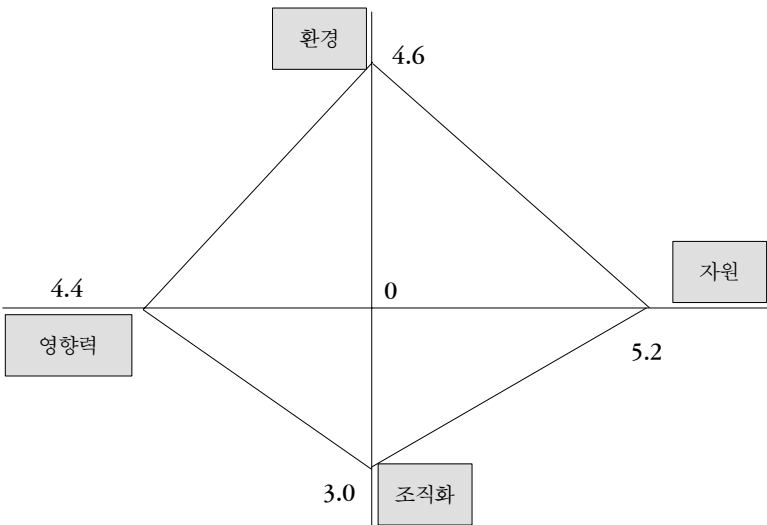
차원	주요지표	설문항목
환경 (5)	집단활동의 보장	법적으로 단체활동이 보장되는가 문화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기 좋은가
	정보화의 수준	단체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쉬운가
	시민의 관심	주변의 시민들이 단체활동에 관심이 많은가
	정부의 지원	단체활동에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잘 지원하는가
	언론의 관심	단체활동에 언론의 관심이 많은가
자원 (6)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자는 단체를 잘 리더하는가
	상근자의 역량	상근자가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새로운 상근자가 원활하게 충원되고 있는가
	회원의 관심	단체활동에 회원의 관심이 많은가
	자원봉사자의 참여	단체활동에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참여하는가
	재정의 충족	단체활동에서 재정은 충분한가
	연대체의 존재	단체활동에서 다른 단체와 연대활동이 활발한가 단체활동에서 정부, 기업, 외국단체와도 서로 협력하는가
조직화 (6)	책임자의 지정	특정 사업을 전담하는 상근자를 배치하는가
	구성원의 협력	내부구성원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가
	회원의 참여	단체활동에 회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가
	효과적 재정충원	단체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잘 충원하는가
	정보기술의 활용	단체활동에 인터넷, SNS 등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는가
	네트워크의 구성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가 단체활동에 외부인을 잘 활용하는가
영향력 (7)	의제의 산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인 이슈를 잘 제기하였는가 단체가 제기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었는가
	공공재의 생산	단체활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생산하였는가
	사회자본의 생성	단체활동이 신뢰와 협력문화의 생성에 기여하였는가
	고객의 만족	서비스의 수혜자는 만족하였는가
	지역사회의 반응	지역사회는 단체활동의 결과에 만족하는가
	정부의 반응	정부는 단체활동에 대해 잘 반응하는가 정부가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책의제로 삼는가
언론의 반응	언론이 단체활동을 자주,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도하는가	

출처: 박상필(2013)

〈표 3〉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중간)	조금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그림 2〉 시민운동 다이아몬드9)



9) 여기서 다이아몬드 각 꼭지점의 수치는 7점 척도를 가정하여 임의로 붙인 것이다.

## 2) 모집단의 구성

여기서 사용하는 모형은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주체인 NGO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sup>10)</sup> 광주지역 NGO의 모집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NGO,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매 3년마다 발행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 별도로 조사를 실행하여 구성한 DB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별도로 조사하여 DB를 구축한다면 많은 NGO를 파악하여 각종 풀뿌리단체를 포함시키고 소규모의 NGO를 발굴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sup>11)</sup>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작업이다. 한국민간단체총람은 NGO의 규모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다음으로 유용하지만, 연구개시일 현재로서는 2009년 발간 이후 2012년판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3년 전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sup>12)</sup> 따라서 모집단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NGO를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NGO는 단체설립 1년 경과, 사무실 구비, 회원 1백 명 이상의 조건이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신생단체는 등록에서 빠져 있다. 온라인단체도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매 분기마다 등록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자료의 근시성(近時性)에서 이점이 있다.

10) 모형개발의 논문(박상필, 2013)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지만, NGO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하도록 한 것은 시민운동의 개념을 NGO활동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시민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에서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만들어 설문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주관적 인지 계측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1) 2012년 말 현재 행정안전부에는 10,860개(중앙 1,301개, 지방 9,559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고, 2012년판 한국민간단체총람에는 12,657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한국 NGO는 5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판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포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상필(2012b) 참조.

12) 한국민간단체총람의 경우, 3년이 지난 자료는 각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뀐 것이어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조사를 위한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모집단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NGO로서 2012년 9월 30일에 갱신된 자료이다. 2012년 9월 30일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광주지역 NGO는 379개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규정한 NGO의 개념범주에서 벗어나는 단체 11개 단체를 제외하고 368개 NGO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 3) 표본추출과 조사방법 및 기간

본 연구가 사용한 시민운동지표(CAI)는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운동의 역량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원래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식으로 한국의 NGO를 행정구역별, 활동영역별로 비례층화 표본추출(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및 계통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16개 광역시도별 150개 안팎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 표본으로 선정된 NGO를 방문하여 단체의 중간급 간부(보통 사무국장)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추출된 표본에 근거한 1차 방문조사에서 단체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재를 파악하여 방문한 경우에도 응답률이 낮아, 2차에서는 모집단에 포함된 전체 NGO를 대상으로 E-메일로 전수 조사하였다. 따라서 1차로 방문이 가능한 단체는 방문조사를 하고, 2차로 E-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sup>13)</sup>

<sup>13)</sup> 인터뷰조사(37개 단체)와 E-메일조사(40개 단체)의 역량측정 점수를 비교해보니, 큰 차이는 없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인터뷰조사는 환경(4.2), 자원(4.4), 조직화(4.5), 영향력(4.7), 평균(4.45)이었고, E-메일조사는 환경(4.3), 자원(4.6), 조직화(4.5), 영향력(4.7), 평균(4.51)이었다. 따라서 환경과 자원에서 E-메일조사 단체의 점수가 조금 높았다.

조사는 1차로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37개 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2차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26일간 나머지 단체에게 E-메일을 보내 46개 단체로부터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E-메일로 회수한 단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6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77개 단체의 응답지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최종 유효한 응답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응답률은 21%였다.

#### 4. 조사결과 분석

##### 1) 표본의 분포

총 368개 단체의 지역별 분포도는 아래 <표 4>와 같다. 북구와 동구가 많고 광산구가 적은 편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의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모집단에서의 비율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동구가 높은 편이었고 서구가 낮은 편이었다.

**<표 4> NGO의 지역별 분포**

구분	모집단(개)	차지비율	표본(개)	차지비율
동구	94	25.5%	23	29.9%
서구	61	16.6%	11	14.3%
남구	61	16.6%	12	15.6%
북구	110	29.9%	22	28.6%
광산구	42	11.4%	9	11.7%
계	368	100.0%	77	100.1%

<표 5>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활동영역별(중분류)로 볼 때 총 77개 표본 중에서 복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권력감시, 도시/가정, 모금/추모, 국제협력, 온라인활동, 기타 등은 응답자가 없거나 1명에 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2명 이상인 것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회색 칠한 부분은 제외).<sup>14)</sup> 활동영역을 주창활동, 서비스생산, 대안사회운동 등 3개 영역으로 대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안사회운동이 적었다.<sup>15)</sup>

**<표 5> 활동영역별1 분포**

구분	응답수(개)	차지비율
환경	5	6.5%
인권	2	2.6%
평화/통일	4	5.2%
여성	5	6.5%
권력감시	1	1.3%
정치/경제	5	6.5%
교육/연구	4	5.2%
문화/체육	4	5.2%
복지	21	27.3%
청년/아동	5	6.5%
소비자권리	3	3.9%
도시/가정	0	0.0%
노동/농어민	2	2.6%
외국인	6	7.8%
모금/추모	1	1.3%
자원봉사	6	7.8%
국제협력	1	1.3%
대안사회	2	2.6%
온라인활동	0	0.0%
기타	0	0.0%
계	77	100.1%

14)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서 최소 표본의 수를 4개 정도로 잡고 있다. 368개의 모집단을 연구자의 시각에서 활동영역을 분류할 때, 단체가 2개뿐인 단체도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소 표본수를 2개로 잡았다.

15) 한국의 NGO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주창활동단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서비스생산 단체가 주창활동 단체를 능가하였다. 대안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는 늦게 나타났는데, 아직도 태동단계에 있다.

〈표 6〉 활동영역별2 분포

구분	응답수(개)	차지비율
주창활동	16	20.8%
서비스생산	59	76.6%
대안사회운동	2	2.6%
계	77	100.0%

## 2) 전체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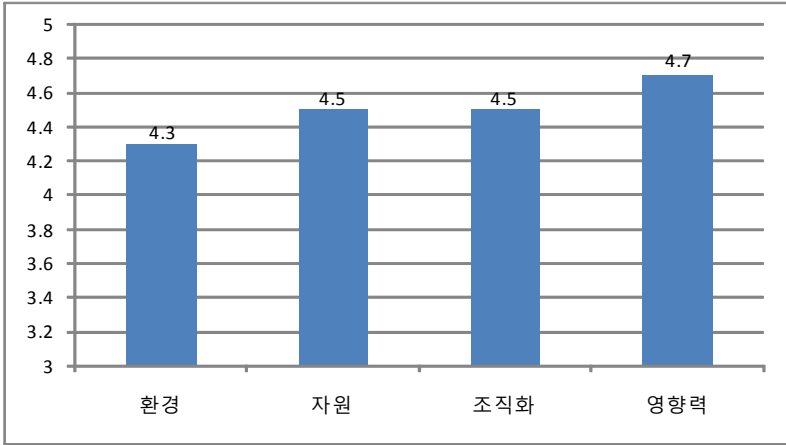
77개 단체를 표본으로 하여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된 결과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점 척도에 평균 4.5점이었다.<sup>16)</sup>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차원은 대체로 고른 분포이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의 역량이 낮고 영향력의 역량이 높았다.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의 역량에서 환경과 자원에서 낮고 조직화와 영향력에서 높다는 일반적 통념과 대체로 일치한다. <표 7>의 결과를 시민운동 다이아몬드로 나타내면 <그림 3>와 같다. 이것은 7점까지 있는 축의 길이를 확대한 것인데, 다이아몬드의 축에서 환경 쪽이 짧고 영향력 쪽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각 차원별 점수 비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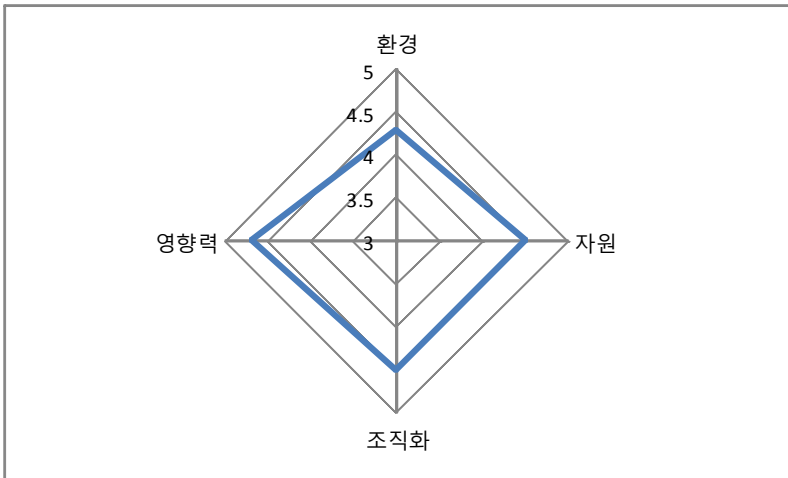
구분	점수
환경	4.3
자원	4.5
조직화	4.5
영향력	4.7
평균	4.5

16) 4개 차원별 각각의 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평균은 반올림 이전의 점수를 평균점으로 환산한 것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이하 다른 경우에도 동일함.

〈표 8〉 각 차원별 점수 비교2



〈그림 3〉 광주지역의 시민운동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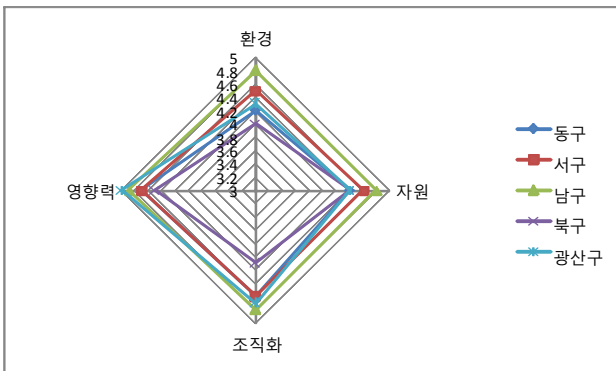
### 3) 지역별 비교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 동안 시민운동의 연구자나 활동가는 대도시의 성격상 자치구에 따라 시민운동의 역량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남구가 높고 북구가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축의 길이를 확대한 <그림 4>의 시민운동 다이아몬드에서 잘 나타난다.

<표 9> 지역별 점수 비교

구분	환경	자원	조직화	영향력	평균
동구	4.2	4.4	4.6	4.7	4.5
서구	4.5	4.6	4.6	4.7	4.6
남구	4.8	4.8	4.8	4.9	4.8
북구	4.0	4.4	4.1	4.5	4.2
광산구	4.3	4.4	4.7	5.0	4.6

<그림 4> 지역별 시민운동 역량 비교



<표 10>은 표본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로 활동영역(중분류)을 구분한 것이다. 아래 활동영역별 역량 비교에 나오는 바와 같이, 북구에 역량이 낮은 노동/농어민과 대안사회 영역이 각각 2개 단체와 1개 단체가 있지만, 역량이 높은 여성, 외국인, 자원봉사, 소비자 권리 영역의 단체가 남구에 비해 많다. 따라서 광주에서 남구의 시민운동 역량이 높고 북구가 낮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시민운동가에 따르면, 남구는 일부가 부유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인 반면, 북구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이다. 소득의 차이가 시민운동 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구는 4개의 차원 중에서 환경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북구는 조직화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지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면 잘 드러날 것이다.<sup>17)</sup>

---

17) 예를 들어, 서울지역을 조사하여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강북지역 몇 개구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표 10〉 지역별 활동영역 분포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환경	1	1	0	3	0	5
인권	0	1	0	1	0	2
평화/통일	2	2	0	0	0	4
여성	0	1	0	2	2	5
권력감시	1	0	0	0	0	1
정치/경제	3	0	2	0	0	5
교육/연구	2	1	0	1	0	4
문화/체육	2	0	1	0	1	4
복지	4	1	6	8	2	21
청년/아동	1	1	2	1	0	5
소비자권리	1	1	0	1	0	3
도시/가정	0	0	0	0	0	0
노동/농어민	0	0	0	2	0	2
외국인	3	1	0	0	2	6
모금/추모	1	0	0	0	0	1
자원봉사	1	1	1	2	1	6
국제협력	1	0	0	0	0	1
대안사회	0	0	0	1	1	2
온라인활동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계	23	11	12	22	9	77

#### 4) 활동영역별 비교

활동영역을 20개 영역으로 중분류하여 광주지역의 시민운동 역량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영역이 전체 평균인 4.5에 근접하였지만, 몇 개의 영역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본이 2개 이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할 때, 여성 영역의 역량이 가장 높고 노동/농어민 영역이 가장 낮았다. 전체를 개괄할 때 여성·자원봉사·외국인 영역의 역량이 높고, 노동/농어민·대안사회의 역량이 낮았다. 평균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평화/통일의 환경점수가 높고, 높은 편에 속하는 외국인의 환경

점수가 낮은 것이 이례적이다. 물론 이것은 측정모형에서 지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평화/통일 영역은 시민의 관심, 정부의 지원, 언론의 관심이 높은 반면, 외국인 영역은 낮은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권리옹호와 관련한 시민운동에는 아직도 시민·정부·언론의 관심과 지원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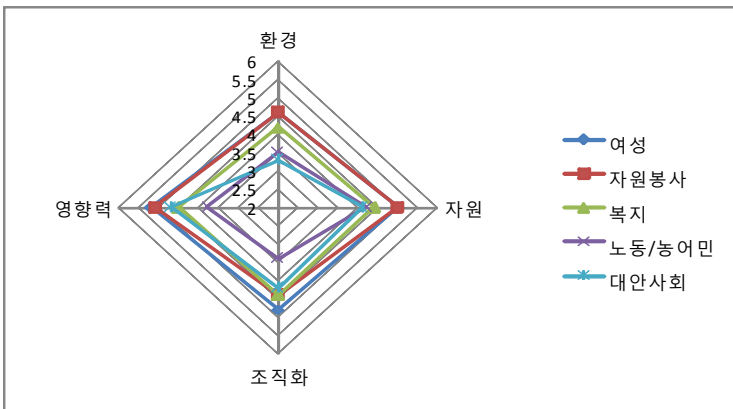
〈표 11〉 활동영역별1 점수 비교

구분	환경	자원	조직화	영향력	평균
환경	4.0	4.6	4.8	4.7	4.5
인권	4.1	4.5	4.5	5.1	4.5
평화/통일	4.8	3.5	4.6	4.3	4.3
여성	4.6	5.0	4.8	5.2	4.9
정치/경제	4.7	4.2	4.5	4.9	4.6
교육/연구	4.0	4.6	4.2	4.6	4.4
문화/체육	4.5	4.5	4.4	4.8	4.5
복지	4.2	4.4	4.4	4.5	4.4
청년/아동	4.0	4.6	4.5	4.5	4.4
소비자권리	4.8	4.4	3.8	5.2	4.6
노동/농어민	3.5	4.2	3.4	3.8	3.7
외국인	3.9	4.6	5.0	5.1	4.7
자원봉사	4.6	5.0	4.4	5.1	4.8
대안사회	3.3	4.1	4.2	4.7	4.1

광주지역 전체 시민운동의 역량에서 차원별로 환경의 역량이 낮고 영향력의 역량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표7 혹은 표8 참조), 상대적인 의미에서 활동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환경 영역은 조직화의 역량이 높았다. 둘째, 평화/통일 영역은 환경의 역량이 높은 반면 자원과 영향력의 역량이 낮았다. 셋째, 정치/경제·문화/체육 영역은 환경의 역량이 높은 편이었다. 넷째, 청년/아동 영역은 자원의 역량이 높은 편

이었다. 다섯째, 소비자권리 영역은 환경의 역량이 높고 조직화의 역량이 낮은 편이었다. 여섯째, 노동/농어민 영역은 자원의 역량이 높고 조직화와 영향력의 역량이 낮은 편이었다. 일곱째, 자원봉사 영역은 조직화의 역량이 낮았다. <그림 5>은 대표적으로 역량이 높은 여성과 자원봉사 영역, 중간인 복지 영역, 그리고 역량이 낮은 노동/농어민과 대안사회 영역 등 5개 영역을 축의 길이를 확대하여 다이아몬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활동영역별1 시민운동 역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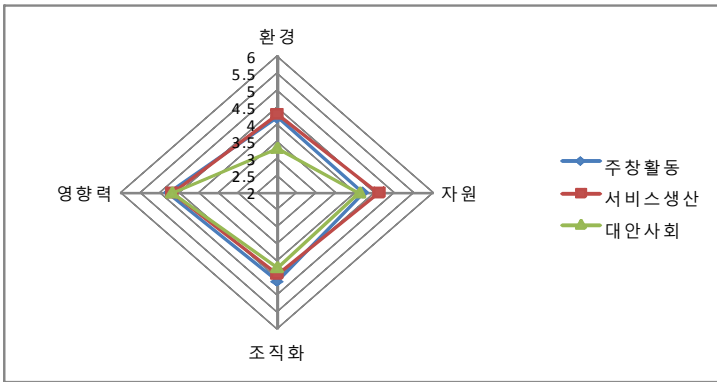
활동영역을 주창활동, 서비스생산, 대안사회운동 등 3개 영역으로 대분류할 때,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생산 영역의 역량이 높고, 대안사회운동 영역의 역량이 낮았다. 이것은 대체로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서비스생산 영역의 단체가 주창활동 영역의 단체를 수적으로 추월한 이후(박상필 2011, 429; 시민운동정보센터 2006), 주창활동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창활동에 대한 견제와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주창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sup>18)</sup> 대안

사회운동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차원 간 비교에서는 환경의 역량이 낮고 영향력의 역량이 높은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대안사회운동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이 2개밖에 되지 않는 대안사회운동을 제외하고 주창활동과 서비스생산 두 영역만 비교한다면, 주창활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조직화와 영향력의 점수가 높았고, 서비스생산 영역은 상대적으로 환경과 자원의 점수가 높았다. 이것 또한 두 영역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림 6>은 대분류한 3개 영역의 역량을 축의 길이를 확대하여 다이아몬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활동영역별2 점수 비교

구분	환경	자원	조직화	영향력	평균
주창활동	4.2	4.2	4.6	4.8	4.4
서비스생산	4.3	4.6	4.4	4.7	4.5
대안사회운동	3.3	4.1	4.2	4.7	4.1

〈그림 6〉 활동영역별2 시민운동 역량 비교



18) 한국에서 주창활동의 역량이 가장 높은 시기는 대체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낙선 낙선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이후 주창활동의 역량은 계속 하락하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크게 낮아졌다.

## 5. 맺음말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중간점(4점)보다 조금 높은 4.5점을 기록하였다. 시민운동 역량의 차원 간 비교에서는 시민운동을 연구하는 전문학자와 현장활동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환경의 역량이 낮고 영향력의 역량이 높았다. 광주시의 하위지역별로는 역량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대적으로 남구가 높고 북구가 낮은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활동영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20개 영역으로 중분류할 때 여성, 자원봉사, 외국인 영역의 역량이 높고, 노동/농어민, 대안사회의 역량이 낮았다. 그리고 3개 영역으로 대분류할 때, 서비스생산의 역량이 오히려 주창활동보다 높았고, 대안사회운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었다.

본 연구는 CAI(시민운동지표)의 개발을 통해 전국 시민운동 역량측정의 일환으로서, 처음으로 광주지역에 실시한 지역 시민운동연구의 분석이다. 광주지역의 측정만으로 광주지역 시민운동 역량의 주요한 특성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을 계속 연구하여 비교한다면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지역별·활동영역별 역량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지역 내에서 지역별로 대도시의 특성상 가정했던 것과는 달리 차이가 있었다. 활동영역별로도 20개 중분류에서 역량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찾아낼 수 있었고, 3개 대분류에서 서비스생산 영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환경의 역량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정부·언론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주창활동에 대한 견제와 억압이 강화되어 주창활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권

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주창활동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안사회운동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역량이 낮고 특히 환경 차원의 역량이 낮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의 부각과 정책적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래 주관적 인지계측 방식에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고 방문조사 하는 방법을 지향하였다. 주관적 인지계측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래 계획된 방문조사가 한계에 부딪혀 E-메일 조사방식을 혼용하였는데, E-메일 조사는 자료의 신뢰도에서 방문조사보다 뒤떨어지고 응답지 회수율도 낮다는 문제가 있다. 방문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것은 시민단체 근무자의 불친절한 응답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어 실제로 단체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는 신생단체나 소규모의 단체에 적용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NGO의 전체 DB를 구축하는 연구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그것을 모집단으로 사용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금을 더 투입한다면, 소재지를 더 철저하게 파악하고 방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응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4월 1일 접수, 4월 30일 심사완료, 5월 8일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김성현. 2011. “한국시민사회의 환경: 정치적 환경과 경제·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9(1): 31-61.
- 남궁근. 1998.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박상필. 2011. 『NGO학: 자율·참여·연대의 동학』 (개정판). 홍천: 아르케.
- \_\_\_\_\_. 2012a. “시민사회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영리연구』 11(2), 39-68.
- \_\_\_\_\_. 2012b.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 분석.” 『내나라』 21권, 8-21.
- \_\_\_\_\_. 2013. “시민운동 측정모형의 개발.” 『한국비영리연구』 12(1), 24-48.
- 시민운동정보센터. 2006. 『한국민간단체총람』.
- 임승빈. 2009.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7(1), 35-53.
- 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아르케, 263-297.
- 조대엽. 2003.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시민사회와 NGO』 1(1), 19-48.
- 조효제. 2005. “아시아 시민사회 비교연구의 쟁점과 평가.” 이남주 외. 『아시아의 시민사회: 현재와 전망』. 서울: 아르케, 11-28.
- 주성수. 2011. “시민사회의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분석: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9(1), 3-29.
- 주성수 편저. 2006. 『한국시민사회지표』. 서울: 아르케.
- CIVICUS. 2010. *Assessing and Strengthening Civil Society Worldwide*(CIVICUS Civil Society Index 2008-2010 Program Description).
- \_\_\_\_\_. 2011. *Bridging the Gaps: Citizens, Organizations and Dissociation*(Civil Society Index Summary Report: 2008-2011).
- Cohen, Jean and Arato, Andrew.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 Heinrich, Finn. 2007. "Civil Society: Important, yet Largely Uncharted Territory." In Finn Heinrich, ed. *CIVICUS Global Survey of the State of Civil Society*.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xxi-xxxi.
- Heinrich, Finn and Malena, Carmen. 2007. "CIVICUS Civil Society Index." In Finn Heinrich, ed., *CIVICUS Global Survey of the State of Civil Society*.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1-14.
- McAdam, Doug. 1988. "Micromobilization Contexts and Recruitment to Activism." In Bert Klandermans, et al., 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Greenwich, CT: JAI Press, 125-154.
- Salamon, Lester. 1995. *Partners in Public Servi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03. "NGO-Civil Society."([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 Measurement of the civic activism capability of Gwangju

*Sang-Peel Park • Min-chang Lee*

Civil society has emerged worldwide after 1980s which brought about the needs to empirically measure it. This paper aims to measure the civic activism capability of the City of Gwangju with CAI(Civic Activism Index) which i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model of CSI(Civil Society Index). The capability of civic activism of Gwangju was on average 4.5 of a 7-point scal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difference that the dimension of environment was in lower level and that of impact was in higher level. In comparison of regions, the capability of Nam-gu was relatively high and that of Book-gu was relatively low being different from the hypothesis. In comparison of civic activism area, the capabilities of women right, volunteering, aid for foreigners were in high score which are compared with those of labor/farmers and fishermen, alternative society. If we classify the civic activism area into three, the capability of service produ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advocacy, with alternative society activism being gained lower score. We can, of course, not grasp by oneself the meanings of civic activism capability of Gwangju. This problem will be easily solved if we measure the capabilities of civic activism of other regions and compare with each other.

Key Words: Gwangju, civil society, civic activism, capability, measurement

## 설문지

여기서 시민운동 혹은 단체활동이란 광의적 의미의 공공선 증대를 위해 실행하는 시민단체(NGO)의 사업을 말합니다. 응답의 주체는 귀하가 속한 단체이므로 단체의 관점에서 응답해주시고, 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7점 척도에 맞추어 설문지 오른쪽 점수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중간)	조금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설문지〉

차원	주요지표	설문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환경	집단활동의 보장	법적으로 단체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문화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기 좋다							
	정보화의 수준	단체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쉽다							
	시민의 관심	주변의 시민들이 단체활동에 관심이 많다							
	정부의 지원	단체활동에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잘 지원한다							
자원	언론의 관심	단체활동에 언론의 관심이 많다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자는 단체를 잘 리더한다							
	상근자의 역량	상근자가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상근자가 원활하게 충원되고 있다							
	회원의 관심	단체활동에 회원의 관심이 많다							
	자원봉사자의 참여	단체활동에 자원봉사자가 충분하게 참여한다							
재정의 충족	단체활동에서 재정은 충분하다								

	연대체의 존재	단체활동에서 다른 단체와 연대활동이 활발하다							
		단체활동에서 정부, 기업, 외국단체와도 서로 협력한다							
조직 화	책임자의 지정	특정 사업을 전담하는 상근자를 배치한다							
	구성원의 협력	내부구성원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회원의 참여	단체활동에 회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효과적 재정충원	단체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잘 충원한다							
	정보기술의 활용	단체활동에 인터넷, SNS 등 정보기술을 잘 활용한다							
	네트워크의 구성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다 단체활동에 외부인을 잘 활용한다							
영향 력	의제의 산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인 이슈를 잘 제기한다							
		단체가 제기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었다							
	공공재의 생산	단체활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생산하였다							
	사회자본의 생성	단체활동이 신뢰와 협력문화의 생성에 기여하였다							
	고객의 만족	서비스의 수혜자는 만족하였다							
	지역사회의 반응	지역사회는 단체활동의 결과에 만족한다							
	정부의 반응	정부는 단체활동에 대해 잘 반응한다							
정부가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책의제로 삼는다									
언론의 반응	언론이 단체활동을 자주,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도한다								

아래는 시민운동 역량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단체는 다음 20개 영역 중 주로 어느 영역에서 활동합니까?  
(반드시 1개만 선택)

(            )

번호	분류	번호	분류
①	환경(감시/정책제안, 교육/연구/계몽)	⑪	소비자권리
②	인권	⑫	도시/가정(지역사회, 교통, 안전, 주택, 가정)
③	평화/통일(평화, 통일/민족)	⑬	노동/농어민(노동, 농어민, 빈민)
④	여성	⑭	외국인(외국인복지, 노동자, 다문화)
⑤	권력감시(행정부/국회/사법, 기업, 언론)	⑮	모금/추모(모금, 기금, 추모회)
⑥	정치/경제(정치/행정, 경제, 지역자치, 의식계몽)	⑯	자원봉사
⑦	교육/연구(교육, 연구, 학회)	⑰	국제협력(국제협력, 재외동포)
⑧	문화/체육(예술, 문화, 체육, 오락, 문화재)	⑱	대안사회(공동체, 조합, 교육/연구, 명상/요가)
⑨	복지(의료/보건, 장애인, 노인, 기타복지)	⑲	온라인활동
⑩	청년/아동(청년, 청소년, 아동)	⑳	기타

2. 귀하의 단체는 다음 3개 영역 중 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반드시 1개만 선택) (            )

번호	분류
①	주창활동(의견주장, 권력감시, 정책제안)
②	서비스생산(법률지원, 상담, 자문, 교류, 교육, 봉사, 간호, 원조)
③	대안사회운동(여성운동, 공동체생활, 생협, 지역화폐, 공정무역, 공정여행,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3. 귀하의 단체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            )년

(※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근사치도 가능)

4. 귀하의 단체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명

※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 (            )명

5. 귀하의 단체 상근자는 몇 명입니까? (            )명

(※ 파트타임은 풀타임으로 계산, 주간 20시간 근무는 0.5명)

6. 귀하의 단체 연간예산은 얼마입니까? (        원)  
(※ 백만 원 단위로 근사치도 가능)
7. 귀하의 단체 법적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기타법인    ④ 임의단체
8. 귀하의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9. 귀하의 단체는 정기간행물, 소식지, 뉴스레터 등을 발행합니까?  
(        )  
(※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도 포함)  
① 발행한다    ② 발행하지 않는다